“종교 간 평화, 세계 평화 필수요건”

범어사, 종교평화포럼 세미나
‘평화 위한 종교 역할’ 주제로
오강남·금강스님 등 발제 나서
현대사회 퇴행 막는 길 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가 개최한 종교평화포럼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오강남 박사.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종교 간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5월 7일 범어사 선문화센터에서 ‘21세기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종교평화포럼 세미나에서 오강남 박사(캐나다 리자이나대 종교학 명예교수)는 한스 큉(1928~2021)의 말을 인용하며 종교 간 화합을 역설했다.

오 박사는 ‘인류평화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종교 간 화합이 세계평화의 필수 요건”이라 강조했다. 오 박사는 “깨침과 메타노이아, 염불과 예수 기도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체험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결국 만물이 하나라는 사실을 체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하며 “여러 가지 수행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우주 공동체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두 종교 모두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돼 있다는 진실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이어 “이것이 바로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維摩) 거사의 마음, 보살의 자비심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이웃과 나를 하나로 보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김상일 박사(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가 ‘세계평화를 위한 한(韓) 철학’을,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세계평화와 붓다의 가르침’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는 마지막으로 성소은 영성가가 좌장으로 진행한 논찬과 대담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와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격려사와 환영사로 참가자를 환영하고 행사 개최 의미를 전달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부산종교인평화포럼과 범어사가 함께하는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고 인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각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과 피정 등 다양한 마음수련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정화시키고, 내면의 행복은 물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 대종사여, 중생구제 보살로 돌아오소서”

법연종 종정 조연 스님 영결식
5월 9일 합천 법연사서 엄수
법납 32년, 세납 78세 원적해
각 종단스님들 추모물결 잇달아



법연종 종정 조연 대종사의 영결식이 5월 9일 경남 합천 황매산 법연사에서 엄수됐다.

전법교화와 중생구제의 사표인 법연종 종정 조연 대종사의 영결식이 5월 9일 경남 합천 황매산 법연사에서 엄수됐다. 조연 스님은 5월 5일 새벽 4시에 법납 32년, 세납 78세로 원적에 들었다.

영결식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조계종 사서실장 진경 스님, 대각종 총무부장 원광 스님,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등 전국에서 참석한 스님들과 김윤철 합천군수, 김종숙 여성개발원 부원장, 장영철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최수용 법연종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조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사에서 덕아 연사는 “큰스님께서 세운 법연종은 자연사상과 불타의 가르침을 일심으로 정진하는 수행 종단으로서 지역과 나라발전에 이바지하는 호국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나눔을 실천하신 큰스님 가르침 따라 정법의 길을 넓히고 복덕과 지혜를 닦아 나가는 법연 불자들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조연 대종사님이시어! 속환사바하시어 중생구제를 위해, 종교통합을 위해 사바세계에 돌아오소서”라며 안타까워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사무총장 진호 스님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이생과의 인연이 다하여 우리 곁을 이리도 훌쩍 떠나시니 스님을 보내드리는 불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이제 원적의 그윽한 법향 속에 편히 잠드시고 왕생극락 하시옵고 부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의 법향으로, 다시 속환 사바하시어 육도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어 나투소서”라고 애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조연 큰스님, 제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인데 열반으로 적정을 보이십니까? 황매산 철쭉 향기를 쫓아서 다시 오시어 덕향으로 법석을 환희 회향하소서”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허성 법연종 대표이사는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통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셨다 생각한다. 큰스님께서 나투신 법을 더 밝게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최수용 법연종 전국신도회장은 “스님을 보내드리는 저희들 마음, 슬픔 가득하나 이제 원적의 그윽한 법향 속 극락왕생 드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영결식 후 사부대중은 납골을 이운했으며, 이운은 영결식장을 지나 탑마당, 명부전으로 이어졌다.

합천=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경찰청 봉축법요… “시민안전 최우선”

경승·경찰공무원 등 축원 올려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정오 스님)은 5월 8일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한 경승스님들과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 및 경찰 관계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경승실장 정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음에 귀중한 가르침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철문 청장은 “우리가 밝힌 연등은 시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시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 등 부산 경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일문화교류 여성부 ‘봉축 만발공양’

송상현광장서 사찰비빔밥 나눠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이하 여성부)가 5월 5일 송상현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무차만발공양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여성부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과 종단스님들이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여성부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에게 사찰비빔밥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백명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은 비빔밥 2000인 분을 마련해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만발공양을 올렸다.

상진 스님은 “여성부는 한일 화합을 이끄는 대표 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백명숙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모범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명숙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스님들께서 방문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여성불자회, 파라미타 장학금 전달

중·고등학생 16명에 총 600만원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5월 7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파라미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봉축을 맞아 인재불사에 앞장섰다.〈사진〉 행사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대종사, 왕선자, 류영남 고문, 정분남 회장, 박명규 녹산중 교장, 천용귀 해동중 교감, 김진화 동해중 교감, 최지원 금정중 교사 등이 함께했다. 장학금은 고교생 6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을 전달했다.

총재 혜총 대종사는 “오늘 전달해 드린 금액이 비록 크지 않지만 공부에 보탬이 된다면 법사로서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정분남 회장은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은 학업에 매진해 각자 정한 목표를 이루고 단련시켜 꿈을 키우시길 바란다”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불자라는 자부심으로 성장해 여러분도 어디에나 꼭 필요한 인재가 돼달라”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고문단

대장로 : 석정각 대종사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前종정
석삼중 대종사 :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석의천 대종사 : 대한불교선화종 종정
석혜우 대종사 :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종정
석해곡 대종사 : 대한불교열반종 종정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대표이사 겸 회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이사 부회장 : 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기획이사 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재무이사 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상임이사 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불교근본해동종
호법이사 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전법이사 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섭외이사 부회장 : 보검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행정이사 부회장 : 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규이사 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호계이사 부회장 : 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유나이사 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국외이사 부회장 :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차석이사 부회장 : 보안 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법규이사 부회장 : 정림 대종사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외호이사 부회장 : 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외호이사 부회장 : 고석 대종사 한국불교법보조계종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이사 : 일웅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이사 : 명암 대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이사 : 옥당 명사 국제불교상좌부조계종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이사 : 동해 대종사 세계불교일붕종
이사 : 고산 대종사 세계불교법사조계종
회장 사서실장 : 삼하 무착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법사
기획실장 : 전성배 법사
사 무 장 : 상광 배영희
외 회원 일동

■ 법인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 45, 216호 전화 : (042)285-1227
■ 서울사무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안길 27 미근빌딩 4층 전화 : (02)756-1227 ■ 부경사무처 : 불광사(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364-4747